

7월 1 ~ 2주(2015.6.29-7.10) WTO 동향

※ (출처 : 통상전문지) Washington Trade Daily, Inside US Trade, Bridges Weekly

1. DDA 협상

□ (평가) 7월말 작업계획 수립은 어렵다는 인식 하에, 협의 지속
 ("Doha?", 7.2 WTD / "Canada's New Doha 'Matrix'", 7.6 WTD / "Far From the End in Geneva", 7.8 WTD / "Doha Falling", 7.9 WTD / "WTO Members Begin to Concede They Will Miss Work Program Deadline", 7.10 Inside US Trade)

○ 케냐 외무장관(제10차 WTO 각료회의 의장)은 '개발' 차원의 신뢰할 만한 성과물 없이는 나이로비에서 DDA 협상의 종결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위한 주요국들의 건설적 노력 촉구 (7.1 Aid for Trade 회의 참석차 제네바 방문시 주요국과 협의)

○ 캐나다는 DDA 협상 합의점 모색을 위한 논의를 위해 핵심(gateway) 이슈*를 매트릭스로 정리한 자료를 주요국들에게 제시

* 농업 국내보조에서 중국 등 최근가입국들(RAM)의 감축의무 면제 삭제를 제안, AMS/OTDS 관련 새로운 합의 가능성 질의 등

- 중국·인도·브라질 등은 '04년 도하 협상지침 및 '08년 협상 텍스트(안)이 DDA 협상의 기본임을 반복하면서, 이를 무시한 캐나다의 제안은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

○ 7월 말 시한까지 모델리티 수준의 세부적·실질적 DDA 작업계획 수립 전망은 밝지 않으며*(7.8 대사급 회의, 사무총장), 목표수준 조정(recalibration) 논의에서도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

* 협상에서 미국·중국 등 주요국들의 리더십 발휘 부재, 회원국들간의 불신으로 제안서 제출 부진, 개략적 작업계획(broad work program)이라도 우선 수립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 대립 등, 전반적으로 진전이 없는 상황

□ (농업) 노르웨이, 농업 국내보조 제안서 회람

("Norway's Ag Proposal", 7.7 WTD)

○ 농업 국내보조 감축 관련, 노르웨이는 '08년 협상 텍스트(Rev.4) 보다 완화된 형태의 non-paper 제안서를 7.6일 회람

	'08년 협상 텍스트(안)	노르웨이 제안
AMS 감축	총 AMS 규모가 • 400억불 초과(EU) : 70% • 400-150억불(미국/일본) : 60% • 150억불 이하 : 45% • 개도국 : 30%	• EU/일본 : 30% • 8개 선진국 : 20% • AMS 보유 8개 개도국 : 13.3%
품목불특정 de minimis	• 선진국 : 50% 감축 • 개도국 : 33.3% 감축	• 선진국 : 20% • AMS 보유 8개 개도국 : 13%
블루박스 한도	• 선진국 : 평균농업총생산액의 25% • 개도국 : 평균농업총생산액의 5%	선진국/개도국 모두 평균 농업총생산액의 5%까지 가능

2. 발리패키지 후속조치 : 무역원활화협정, 개발 이슈

("Trade Facilitation, Development in Focus as WTO Begins Aid for Trade Review", 7.3 Bridges Weekly)

- WTO 사무총장은 무역 비용·장애물을 제거할 3대 방안 제시 : ①'Aid for Trade Initiative*' 성과물 극대화, ②무역원활화협정 이행, ③12월 WTO 각료회의에서 개발 분야의 새로운 성과 도출

* Aid for Trade Initiative : '05년 홍콩 각료회의에서 출범, 10년간 개발 지원금 2,645억불 지출, 글로벌 무역 비용 1% 감축시 400억불 이상의 글로벌 소득 증대 효과 기대(이 중 2/3는 개도국들에게 혜택)

3. 복수국간 협상

- (서비스협상) 7월 둘째 주 TISA 중간점검회의(stocktaking) 개최
("TISA Talks Next Week", 7.3 WTD / "TISA 'Stocktaking' Next Week Could See Unpopular Proposals Jettisoned", 7.3 Inside US Trade)

- TISA 협상/중간점검회의(7.6~10)에서는 5대 우선 협상분야* 및 시장접근 측면에 대한 논의, 지지가 부진한 제안서 재검토 등 진행

* 금융 서비스, 국내 규제, 통신 서비스, 도로·해운 서비스, 자연인의 이동

- 현재로서는 12월 각료회의 성과와 연계된 계획은 없으며, 하반기 협상(10월/12월)시 일부는 시장접근 협상에 할애 예정

- (정보통신협정 확대 협상) 품목범위 확정을 위한 협상 재개
("ITA Members Tentatively Set July 13 Round, Despite Entrenched Positions", 7.3 Inside US Trade / "ITA Parties Plan New Round Amid Hopes For End To China-Korea Standoff", 7.10 Inside US Trade)

- 80여개의 글로벌 IT 업계가 조속한 협상 타결을 촉구하는 가운데, 7.14~17일간 품목범위 이슈 해결을 위한 ITA 확대협상 개최

* 여름휴가 이전 품목범위 확정, 12월까지 관세철폐기간 이슈 마무리 노력

- (환경상품협상) 7월 협상시 품목범위, 협정문 형식 등 논의 예정
("EU Will Aim To Tackle Services, NTBs With Proposal At Next EGA Round", 7.10 Inside US Trade)

- EU는 EGA가 궁극적으로 환경상품 관세 인하 뿐만 아니라 환경 서비스·비관세장벽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협정문 제안서 제출 계획)

* 미국은 환경 서비스 관련 논의는 TISA 협상에서 논의해야 하며 NTB를 다루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하면서, 동 의견에 반대 입장

- 7월 협상(7.27~31)에서는 EGA 협정문의 형식*과 더불어 650여개의 통합품목 리스트 논의(각국의 관심품목/민감품목 제기)가 지속될 예정

* ITA 형식(각료선언 후 각국의 관세철폐 품목리스트를 양허표에 첨부), 법률 텍스트로 구성하여 WTO 협정문에 부속 등